

# (주)옵토스타

- 대표이사 : 심재기
- 설립년도 : 2002년 3월
- 소재지 :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52 ETRI창업보육센터 217호
- 주생산품 : PLC분배기모듈, WDM모듈, 멀티모드광커플러, 멀티모드 광분배기모듈, AWG 및 Splitter 등 다양한 종류의 광도파로 소자
- 전화 : 042-863-1310
- 팩스 : 042-863-1312

www.optosta.com

## 광집적회로 소자분야의 전문기업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가진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봉사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2002년 3월에 설립된 옵토스타(대표 심재기 <http://www.optosta.com>)는 ETRI Spin-off 기업으로 광도파로 소자 공정, 측정, 패키징 및 신뢰성 시험 등 광집적회로 소자분야의 전문기업이다.

### 광통신 부품의 핵심기업

옵토스타는 고성능, 고품질의 광집적회로 공정, 측정, 신뢰성 및 설계 관련 제조-컨설팅 전문 회사로 AWG 및 Splitter 등 다양한 종류의 광도파로 소자를 생산 및 개발하고 있다. 제품들은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 광네트워크 장비, 센서, 케이블 TV 시스템을 포

함한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창업 초기 주력상품은 광분배기와 파장다중화기였으나 광통신부품의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많은 시련을 겪었다. 창업 1년 후 이동통신용 RF부품 신뢰성 측정 시스템 및 프로그램 제작 공급을 시작으로 주력상품인 광통신용 분배기(Splitter), 파장다중화기(WDM) 등의 비중을 낮추었다. 현재는 광기술을 이용한 한방 레이저 치료기와 로컬 네트워크 서버형 스토리지 등을 주력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다소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서버형 스토리지에 대량의 정보를 전송할 초고속 광채널 기술을 결합한 서버 클러스터링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창업 초기 광통신 시장의 끝없는 추락에 따라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 위축 등 여러 가지 열악한 기업 환경 속에서 생존 전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는 심재기 사장은 "창업 초창기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직원들 간의 돈독한 유대관계가 큰 힘이 되었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직원이 4명인 초미니 회사지만 젊은 회사의 패기로 하루하루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옵토스타는 올해로 창업 3년째, 하지만 직원 모두가 7~8년을 같이 동고동락해온 터라 든든한 팀워크를 자랑한다.

현재는 시스템 운영 분야가 광통신시장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마이크로 PCR 제어 시스템, Battery 내 전력 Test 시스템, 대전력 RF부품의 신뢰성 자동계측 시스템 등의 BT-IT 분야의 생산 및 측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납품하고 있다.

## 기술개발을 통한 제2의 도약 꿈꿔



▲ 제품화된 테라스토 사진

옵토스타는 각 구성원들이 광통신부품생산을 위한 측정, 패키징, 신뢰성 테스트 라인을 자체 구축한 경험 및 기술을 바탕으로 창사 이래로 생산 및 측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RF부품성능측정 및 신뢰성테스트 시스템, 고전력 RF부품 측정 시스템, 고속 PCR 온도제어 시스템, 배터리 과충전 테스트 시스템들을 개발하였다. 웨이퍼 상태의 LD, LED, RF칩 및 LCD 패널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각종 Probe Station과 측정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범용 On-chip test software를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분야에서는 철저한 A/S 및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운용 교육뿐 아니라 고객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교육까지 실시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비통신 분야로 한방 레이저 치료기 사업은 BT-IT의 일환으로 광주지역에서 광응용 기술의 하나로 출발하였다. 한방병원에서 기존 치료기기 수리를 의뢰받은 것을 계기로 동시대 한의대에

임상실험을 위한 R&D 제품을 공급하였다. 현재 임상 실험중이며, 실험 결과에 따라 한의원,한방병원에 보급할 계획이다.

2006년 새로운 바람으로 시작하는 로컬 네트워크 서버형 스토리지는 신개념 솔루션으로서 기존 시장의 진출을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서버형 스토리지는 2004년 광통신 기술과 스토리



지 기술의 접목을 모색하던 중 ETRI 기술지원과 정부 사업 선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5년말 프로젝트명은 「테라스토(Terasto)」라는 서버형 스토리지 제품으로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2006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테라스토는 저장공간의 대형화와 고속 접속 가능 요구와 같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디지털 콘텐츠 시대의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향후 화이버 채널 기술을 결합한 테라스토 FC 버전까지의 이정표를 세우고 제품 개발과 판매를 꾸준히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옵토스타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발굴과 광응용 기술을 접목 발전시켜 반짝이는 별과 같은 회사가 되고자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기업이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여 오래도록 빛이 나는 스타기업이 되기 위한 옵토스타의 힘찬 전진은 어둠 밤하늘을 밝히는 별처럼 쉽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APID